

# 울울창창 생명의 '화엄'



저수지에서 일주문을 지나면 호젓하고 그윽한 숲길이 나온다

## 선불교 초기에 지어진 선종사찰

우리의 절이 산중에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신라의 삼국통일 직후의 상대사 시대이지만, 선종 절이 하나의 문화양상으로서 전통이 된 것은 중국으로부터 선종(禪宗)이 들어오기 시작하던 9세기 이후 구산선문 시대의 일이다. 당시 선불교의 전수승들은 도읍에서 멀리 떨어진 심산유곡에다 절을 짓고 선지를 펼쳤다.

상주 노악산(露峯山) 남장사(南長寺)도 선불교 초기에 지어진 전형적인 선종사찰이다. 신라 말 최치원(崔致遠)이 지은 쌍계사 진감국사비(眞鑑國師碑)에, "당나라에서 돌아온 국사가 노악산 장백사(長柏寺=남장사에서 선을 가르치니 배우려는 이가 구름처럼 모였다"는 기록이 있다.

남장사 삼거리에 서면 멀리 노악산 주봉과 능선들이 보인다. 해발 725m인 노악산은 <산경표(山徑表)>에 '노음산(露陰山)'으로 나와 있다.

남장사는 사하촌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좋다. 너무 호젓하고 허허롭다 싶을 즈음 산자락에 활장승 하나가 나타난다. 세모난 얼굴에 특 볼거진 눈과 큰 코가 한눈에도 남성을 느끼게 한다.

활장승을 지나면 오른쪽으로 아담한 저수지가 녹음 속에 묻혀 있다. 남장마을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 가둔 물이다. 물총새 한 마리가 여기저기 건너 앉으며 물 위를 유영하는 물고기를 노리고 있다.

저수지에서 일주문을 지나 큰 절까지는 호젓하고 그윽한 숲길이다. 소나무와 참나무를 비롯한 느티나무, 떡죽나무, 오리나무, 아카

시, 느릅나무, 산딸나무, 개웃나무 등의 활엽수가 푸른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다.

남장사의 일주문은 꽤나 연륜이 깊다. 팔작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속살에 1000년 된 칙뿌리라고도 하고 싸리나무라고도 한다. 하지만 느티나무가 아니고는 그렇게 굵은 나무를 이 땅에서 찾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상재기가 난 구멍 속에는 벌들이 집을 지었다.

범종루 주변은 수령 400년 된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전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등등 장년의 나무들이 서로 도반이 되어 어울려 있다.

남장사 경내는 아미타불을 모신 극락보전 영역과 비로자나불을 모신 보광전 영역으로 크게 나뉜다. 경사지에 앉은 두 영역은 다 들지 않은 자연적으로 쌓은 석축과 계단과 돌담으로 자연스럽게 구획돼 있다. 돌로 쌓았음에도 색깔이 밝아서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게다가 시멘트를 거의 쓰지 않아서 친환경적이다.

극락보전 내부포복에 '이백기경상천도(李白騎鯨上天圖)'가 눈길을 끈다. 이백이 채석강에서 뱃놀이를 하던 중에 강물에 비친 달을 건지려다가 죽어서 고래를 타고 천상으로 갔다는 전설을 그린 그림이다. 고래를 그린 것이 그만 아가미와 지느러미가 있는 인어를 그리고 말았다.

높은 석단에 걸썉진 돌계단을 오르면 보광전 영역이다. 보광전은 사방이 판벽이다. 판벽은 마치 현악기의 공명(共鳴)통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안에서 스님들이 염불을 하거나 목탁을 치면 소리의 어울림이 좋다.

보광전 옆의 교남강당은 승유배불시대의 잔재이다. 그 옛날 상주 지방의 유림들이 자주 남장사에 들어와 거들먹거리며 음풍농월(詩會)을 가졌다는 기록이 있다. '영남(嶺南)'을 가리키는 '교남(嶠南)'이라는 말이 풍기는 분위기도 그렇다.

수각 옆에 수국이 무성하다. 수국은 한자로 비단 '수(繡)'자를 쓴다. 꽃은 암수가 없는 무성화로서 시기에 따라서 연자주색-푸른색-연분홍색으로 여러 차례 변한다. 수국은 종자가 없기 때문에 잎이 진 후 봄에 가지들 꺾꽂이해서 번식시킨다.

수각 지붕 위에 들나뭇과에 속하는 바위솔들이 여기저기 뿌리를 박고 있다. 바위솔 잎은 잎자루가 없어서 줄기에 다닥다닥 붙어서 난다. 오래된 기와에서 자란다 하여 일명 '와송(瓦松)'이라고도 하는데, 산중 절집에 가면 석탑이나 오랜 기와지붕에서 흔히 눈에 띈다.

영산전 계류 관목 숲에 큰우리새 한 쌍이 가지 저 가지를 날아 다니고 있다. 동남아에서 겨울을 나는 큰우리새는 전국에 분포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여름철새이다. 수컷은 코발트 청색을 띠고, 암컷은 올리브 갈색을 띠고 있다. 큰우리새 부부는 새끼들을 모두 이소시켜 놓고 요즘 남장사 계곡 숲에서 들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큰절에서 관음선원 가는 길은 호젓한 오솔길이다. 일손이 모자라 내버려둔 목발과 산자락 풀섶과 관목숲에는 다양한 초본들이 대화

## 극락전 · 보광전 석축 등 자연석으로 구획 관음선원 가는길 초본류 다양, 대화엄 이취 주변 숲 울창 딱정벌레 · 두꺼비 자주 관찰

엄의 정토를 이루고 있다. 그 가운데 난초 종류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타래란, 해오라비란, 잠자리란, 방울새란 등은 물기가 축축한 습지에 자라고 은대란, 육잠란, 흰제비란, 병아리란 등은 잡목 숲에서 관찰된다.

누리장나무가 때 일찍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누리장나무의 꽃은 암꽃과 수꽃이 따로 있고, 색깔도 각기 다르다. 화려한 꽃에 어울리지 않게 누렇고 여겨운 냄새를 풍긴다고 해서 누리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래도 관음들은 그 냄새를 아주 좋아한다. 늦가을이면 열매는 짙푸른색으로 익는다.

노악산 주변은 참나무가 많아서 딱정벌레류들이 자주 관찰된다. 우리목하늘소는 '떡갈나무하늘소'라는 별명에서 보듯이 참나무를 좋아한다. 흑갈색 얼룩무늬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 딱정벌레의 어깨 쪽에 큰 알갱이가 톱처럼 나뉘었다. 참나무 속에서 3~4년을 숨어 살다가 날개를 달고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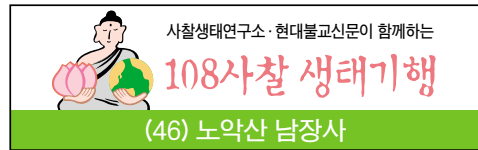
관음선원 숲 그늘에서 관찰된 두꺼비는 특이아생동물로 보호되고 있다. 주변 환경에 따라 몸의 색깔을 잘 바꾸는 변장의 명수이다. 두꺼비는 운수하고 행동도 느리지만, 위기에 처하면 등쪽에 돌기에서 하얀 색깔의 독을 낸다. 이것 때문에 뱀도 함부로 두꺼비를 삼키지 못한다.

파초가 아름다운 관음선원은 관음보살을 본존으로 하는 비구니 암자이다. 후불벽에 목각탱이 모셔져 있다. 자연(나무)과 예술(회화)이 만들어진 목각탱은 조선 후기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는데, 관음선원 목각탱도 속중 때인 1694년에 제작된 것이다.

관음선원에서 중궁암(中宮庵)까지는 등산로로 50m 거리다. 활꼴(弓形)으로 휘어진 노악산의 8부 능선에 자리하고 있다. 가는 동안 경사가 있어서 꽤나 숨이 가쁘다.

숲길 주변은 소나무와 활엽수들이 서로 경쟁하며 울창한 숲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인적 끊어진 밤이면 이 길은 멧돼지와 오소리 같은 포유류가 오르내리는 야생의 길목이 된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관음선원 앞뜰에 핀 파초



우리목하늘소



관음선원 숲에서 많이 관찰되는 두꺼비



누리장나무꽃



큰우리새



## 마하몰 추천 우수상품 특별기획전

신문지면광고를 통한 전화주문 고객에 한하여 아래 특가가격으로 드립니다.



**■ 심경(心經)**  
"반야심경", "심요장구대다라니", "금강경찬" 불경을 힐링리듬에 기타소리를 접목시킨 앨범.  
30년 동안 음반제작자 겸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불교음악을 보급해온 안치행씨가 제작하였고 시인 김하리씨가 불경의 내용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시 낭송을 하였습니다.

1set : 1. 배우기 쉬운 합창 불경 2. 의미 있는 노래  
2set : 3. 김하리 시인의 불경영상 4. 음나니 반예음, 관세음보살  
3set : 5. 불자가요메들리 1 6. 불자가요메들리 2



**심경 (1) - 배우기 쉬운 합창 불경**  
1. 반야심경 2. 금강경 3. 반야심경  
4. 법구경 5. 우상계 6. 보광심야론  
7. 금강경찬



**심경 (2) - 의미 있는 노래**  
1. 연등불제 2. 마음을 다스리는 글 3. 무심  
4. 보광심야론 5. 무상계 6. 마음을 등불  
7. 회상곡 8. 아미타제 바라미제 9. 생사윤회  
10. 아미타



**심경 (3) - 김하리 시인의 불경영상 시낭송**  
1. 환속경 2. 금강경 3. 반야심경  
4. 법구경 5. 우상계 6. 보광심야론  
7. 마음을 다스리는 글  
8. 아미타 아리랑(노래)  
9. 독도의 눈물(노래)  
10. 음나니반예음



**심경 (4) - 김하리 시인의 불경영상 시낭송**  
1. 음나니반예음 - 작곡·안치행  
2. 관세음보살 - 작곡·안치행



**심경 (5) - 불자가요메들리 1**  
1.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2. 음나니반예음  
3. 범천새 울  
4. 인연 5. 오계  
6. 니르바나  
7. 음나니반예음



**심경 (6) - 불자가요메들리 2**  
1. 범천새 울 2. 나무관세음보살 3. 관세음보살  
4. 범천 5. 범천경 6. 음나니반예음  
7. 불자 8. 꽃보살 9. 관세음보살  
10. 회차경리 11. 리출리 12. 음나니반예음  
13. 환반만 옷아비 14. 관세음보살

· 2CD(1set) : 20,000원 · 2MC(1set) : 10,000원 · 풀세트(6CD, 6MC) : 75,000원

### ■ 반야심경 고급손목시계

불자님을 위해 스위스 본산 최고급무브먼트를 사용하여 만든 반야심경손목시계 큐빅 13피스와 6시와 12시를 제외한 시간마다 '마하반야바라미다' 글자를 새겨 견고함과 정취를 더한 고급손목시계



77,000원 → 55,000원

### ■ 동자캐릭터 손목시계

남녀노소 누구나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고급 무브먼트를 사용한 동자캐릭터 다양한 색채와 디자인의 시계들과 동자캐릭터가 새겨져 있습니다



19,800원

### ■ 음이온 석재다보탑 398,000원 → 300,000원

'음이온'이 발산하며 '아광빛'으로 신비로운 불자 다보탑 석재 모형 (1:30)



1) 재질 : 자연 대리석 (90%), 아연석 (8%), 음이온분말 (2%)  
2) 특징 : 본 제품은 우리나라 국보 제208호인 '다보탑'을 석재로 조각된 기계가공하여 만든 국내유일의 '소형석재다보탑'이며 다보탑 상제크기의 1/45로 축소 제작되었고 원본적인 모형(다보탑(크리스탈)종이재질)과는 달리 성세한 조각 기술과 기계가공으로 예술품으로서의 소장가치는 물론 실내 인테리어용 소품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제품입니다. 또한 '탑'을 중심으로 지면발산하는 '기'와 '음이온'은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아광기능이 있어 아간에는 녹색아광빛을 발산하여 실내 분위기를 온화하게 연출합니다.

3) 제품사양 : 제품 규격 - 22 x 22 x 31cm · 제품 무게 - 3kg  
4) 포장사양 : 포장 재질 - 오동나무 · 포장 규격 - 사각박스 (40 x 27cm)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주선전화 02-2004-8218~9**  
**Mahamall.co.kr 02-732-1520**